



“모성애는 이 세상을 따뜻하고 올바르게 바꿀 힘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야당 여성 일인자'

박영숙



박영숙씨의 <녹색을 심는 여인> 출판기념회에 남편과 아들이 함께 했다.

한때 정계를 떠나려 했던 박영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음달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다시 최고위원직 경선에 도전한다. 14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포기하며 정치와 연을 끊으려 했던 그가 15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심판을 당당히 받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유를 알아본다.

글·한경심 기자/
사진·정경택 기자

박 영숙 민주당 최고위원(60)이 처음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지극히 우연이었다. 87년 11월 12일 평민당이 창당됐을 때 김대중씨가 여성계에 당직을 맡을 여성지도자 7명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당시 여성계에서도 이제 여성이 결의 기구에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으므로 누군가 참여는 해야 하는데 저 밖에는 말을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수석 부회장으로 있던 그는 창당한 지 2주일도 되지 않는 평민당에 대한 분분한 의논 속에서 입당, 결국 신민당 시절을 거쳐 민주당에 이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여연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었어요. 좀 더 기다렸다가 결정하지는 거였는데, 당을 건설하는 어려운 시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여 부총재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때 남편인 안병무 박사(전 한신대 교수)가 주저하는 그에게 “같이 고생하며 일해야지 다 된 다음에 차지할 생각을 말

라”는 날카로운 충고를 했었다고 귀띔한다.

여성과 환경 문제에 발군의 실력 발휘

여성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그의 입당은 여성운동의 활동무대를 넓힌 셈이다. 그는 당에서는 부총재로, 국회에서는 전국구 의원으로 확실한 지위를 보장받았으므로 그만큼 그가 해야 할 일도 많았다.

“정치라곤 아무 것도 모르는 체계 높은 지위를 부여해준 거죠. 그만큼 평민당은 새로운 정당으로 혁신을 꾀했어요. 제가 입당할 때 이태영박사께서 부총재직은 정치경력 30년 이상이 필요한 자리라고 했어요.”

그가 정치계에서 처음 한 일은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평민당이 새로운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 재야 신진 세력을 대거 영입하도록 그가 창구 노릇을 한 것이다.

“제가 평민당 창구였다면 재야쪽 창구가 이해찬의원이었어요.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가 일하는 태도를 보며 신뢰가 갔어요.”

입니다”

INTERVIEW

그때 쌓은 신뢰는 이후 이해찬의원의 광역선거 공천사건, 14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사건에까지 이어져 그는 자꾸 ‘튀는’ 의의원을 끝까지 두둔하고 당에서 받아들일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당에서도 ‘이해찬통’으로 통하게 됐다.

“역량이 있는 젊은 정치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죠. 정치권 내에서 주류 비주류를 나눌 수 있다면 주류를 따라가지 못한 셈인데, 제가 정치로 입신하려고 뒤늦게 정계에 뛰어든 것도 아니므로 사심없이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심없는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대신 할 일은 태산 같았다. 실제로 그가 의원으로 있었던 13대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족법 개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탁아복지법안, 상수원 수질보호 특별법,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 부담법 등이 개정 혹은 새로 생겼는데 그는 여성과 환경 문제에 관한 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인권이나 환경, 복지분야는 소수나 약자를 위한 부문으로 사실 비인기 종목이죠. 평소 제가 맡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실컷 일했어요.”

그가 소속한 보사분과위에서도 그는 약이니 화장품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피하고 정신대 문제나 의료보험 문제, 태평양전쟁 유족 문제 등 이사회에서 좀처럼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뛰었다. 그에게 심어진 도덕적 이미지도 알고 보면 이런 데에 기인한 것인데, 그가 대정부 질문을 퍼붓는 주대상인 보사부 장관까지도 ‘선거보다도 공익을 우선시하는 의원’으로 그를 인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13대 국회를 돌아보면서 그가 느낀 점은 그런 뿌듯함보다 여성정치의 서글픈 현주소였다.

“가족법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쏟았어요. 그동안 여성단체에서 수십년 동안

돈과 지연이 얽혀있는 정치계와 씨어울리지 않는 그는 이 세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정치계에서 버텼었다. 그래서인지 어려움을 만나도 정치에 대한 염증보다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고치려고 그렇게 애써도 못해낸 것이므로 국회에 들어온 만큼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죠. 그러나 여성관련 법안을 다룰 때도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가동한다는게 무척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성계에서는 그를 대표로 뽑아 국회에 내보낸 셈인데, 그 국회에서 정작 활발하게 일하도록 밀어주지는 못했다는 애기다.

“저는 정치를 권모술수의 파워게임이라고 보지 않고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삶의 조건을 좀 더 낫게 만들려면 여성정책을 더 낫게 고치도록 여성들이 힘을 보여주어야죠. 좀더 나은 여성정책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고 투표해서 심판을 해야 정당은 여성 유권자의 힘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래도 13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관련 법안이 마련되었고 그는 마지막까지, 아니 국회에서 나온 지 금도 그가 청원해 놓은 동성동본 금혼 규정 폐지와 성폭력 특별법 제정안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김대중 이회호내외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 지지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성계 인사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씨는 박위원

을 가리켜 “가족법 개정을 위해서 ‘팔짝 팔짝’ 뛰었다”는 말을 했다.

“팔짝팔짝이라는 표현이 저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어서 무척 웃었는데 정말 많이 조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팔짝팔짝 뛴 덕택인지 37년 만에 가족법이 개정되었는데 정작 여성계에서는 민주당에 고맙다는 인사전화 한 통도 없어 당직자들에게 그가 얼마나 송구스러웠는지 모른다고 한다.

“작은 민원을 처리해줘도 감사패를 기념으로 선물하는데 37년 만에 큰 숙제를 풀었는데도 여성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여성들이 과연 가족법 개정을 원했느냐’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또한 표로도 좀처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은 해줘야 아무 소용 없다’는 식의 반응도 나온다.

특히 공안정국이나 당의 합당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여성문제나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는 그에게 바라는 대로 특위도 구성해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은 김대중 씨에게 그는 비록 표현은 못했지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

정치권 떠나려다 최고위원으로 정치력 행사 요망

13대 국회를 끝내면서 그는 사실상 정치권을 떠날 마음을 가졌었다. 여성 정치





91년 평양에서 IPU 총회가 열렸을 때 여연구씨와 함께.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 그는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이끌고 있다.



의 현주소가 워낙 열악했고 심장 수술을 받은 남편의 건강도 많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국구로 일했으니까 당연히 지역구로 나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구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13대 이후 정리할 생각이었으므로 지역구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죠.”

자신의 보좌관도 다른 지구당에 보내는 등 아무런 선거 준비도 없는 채 다른 젊은 의원들 공천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는데 지역구로 뛰라는 압력이 왔다.

그가 마포 지역구 출전을 포기하자 이를 두고 J일보에서는 ‘순쉬운 전국구를 노린다’며 그를 비난했고 그동안 한번도 언론의 험한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그로서는 그런 속모르는 비난에 상처를 받은 것 같다.

그런 그가 여지껏 정계를 떠나지 못한 것은 다른 사정이 있었다.

“제가 정작 떠난다고 하니까 그동안 저를 보고 정치한다며 더구나 야권이라며 거리를 두던 여성들까지 몰려와 갑자기 공인으로서 저의 책임을 추궁하며 여성정치를 위해서 남으라는 겁니다.”

그를 처음 정치계로 떠민 것처럼 나오는 것도 극구 거부하는 여성계였다 그는 “여성정치 현주소를 확인하고 싶으냐”고 물었고 “지금 상태로는 여성의 정치세력

화가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한다.

“대신 당선 여부 상관없이 15대에 지역구로 뛰어서 여성정치 세력화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여성계에서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니 재출발해야죠.”

지난해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참가한 것도 앞으로를 의식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애초에 이우정의원과 저, 둘 다는 곤란하니 여성후보를 단일화하라는 압력이 있었어요. 이의원과 저는 단연코 거부했고 4천명 민주당원 앞에서 ‘여성운동이나 하자’는 심사로 후보자 모두가 당당히 심판받아야지 단일화는 여성차별이라고 했죠.”

결국 ‘남성대의원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그는 당당히 당선되었다. 이제 곧 한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전당대회에도 재도전, 15대 국회와 광역의회 선거의 발판을 하나씩 다져나갈 작정이다.

특히 15대 총선 전까지는 여성의 정치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거법을 고치는데 주력할 작정이다.

“현행 선거자금법으로는 후원회를 1백명 이상 모집할 수가 없고 5천원을 내도 주민등록을 공개해야 해요. 결국 1백만원 이상 낼 사람만 골라야 하는데 1백만원 이상은 세금사찰도 받아야 해요. 일반

후원자의 적은 돈을 모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여성이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처럼 전열을 가다듬는 그를 두고 그동안 정치에 안 어울리는 사람으로 생각해왔던 남편까지 “어쩌면 정치가 당신의 무대인지도 모르겠다”며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가 정치계에 뛰어든 지난 5년간 병고에도 그를 꾸준히 지원해준 남편은 지난해 12월 결혼 25주년을 맞아 꼭 시간을 내줄 것을 ‘바깥사람’인 그에게 요청, 모처럼 제주도를 다녀왔다고.

“남편과 자식 모두 저를 필요로 하지만 제 개인의 입신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루종일 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민중신학자인 안박사는 아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해 항상 책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잔소리하는 ‘안사람’이라 한다.

독신 직장인에서 주부직장인, 또 전업주부, 자원봉사자로서 그리고 환갑이 지난 지금 완전한 공인으로서 다양한 삶을 살아온 그는 아직까지 쓰지 않은 가능성의 담지자인 여성의 힘과 모성애말로 정치권뿐 아니라 이 세상을 따뜻하고 올바르게 바꿀 힘이라고 믿고 있다. ■